

S-Oil, SK 점유율 하락 “공략기회”

SK, 2003년 원유 수입량 4.8% 감소 ... S-Oil은 1억8434만배럴 기록

SK의 2003년 원유 수입량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업체에 따르면, SK의 2003년 원유 수입량은 2억5209만8000배럴로 2002년의 2억6491만4000배럴보다 4.8% 감소했으며 시장점유율도 35.9%로 전년의 37.0%에 비해 1.1%p 하락했다. 2003년 SK의 공장가동률도 2002년 91.2%보다 7.7%p 낮은 83.5%로 떨어졌다.

현대Oil-Bank 역시 2002년 7월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인천정유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영향으로 2003년 원유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14.9% 감소한 9251만9000배럴에 그쳤다.

반면, 인천정유의 2003년 원유 수입량은 전년보다 133.5% 증가한 3130만1000배럴을 기록했으며 S-Oil도 8.0% 증가한 1억8434만3000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LG-Caltex정유도 2003년 2억2832만7000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2.2%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S-Oil과 현대Oil-Bank가 각각 0.9%p 높아졌으며 LG-Caltex정유와 인천정유는 각각 0.1%p,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SK는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의 여파로 실적이 부진했던 반면, 인천정유는 현대Oil-Bank가 대리점 계약 해지와 함께 원유 공급을 중단한 2002년 7월부터 스위스 Vitol과 원유 공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을 재개한 것이 물량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유업체에서는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와 인천정유와 공급계약을 해지한 현대Oil-Bank가 주춤거린 사이 S-Oil 등이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화학저널 2004/04/01>